

선염할 때의 염색단계

1) 원액 염색(原液 染色)

인조섬유의 방사원액에 염료 또는 안료를 용해 또는 분산시켜 착색시키는 방법으로, 염색건뢰도가 우수하며 균일하게 염착이 되고, 염료나 안료의 손실이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 원액염색 방법은 염색이 어려운 섬유에 이용되는데, 아세테이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터 등에 주로 이용된다.

2) 원료 염색(原料 染色)

방적하기 전의 단섬유 상태에서 염색하는 것으로, 염액 중에서 섬유를 회전시키면서 염색하는 방법과 섬유는 그대로 두고 염액을 순환시키면서 염색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면, 모, 아마 등 단섬유 등에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면을 염색하는 경우를 원면염색, 양털을 염색하는 경우를 원모염색이라 한다.

3) 톱(top) 염색

소모방적의 중간제품인 톱 상태에서 염색하는 방법으로, 톱을 염색기의 염색용 원통에 넣고 염액을 순환시키면서 염색한다. 편물용 털실이나 직물용 털실의 염색에 쓰인다.

4) 사염(絲染)

대부분의 섬유에 적용되는 것으로, 실 상태에서 염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실을 타래 상태로 만들어 염색하는 방법과 보빈 등에 감아서 염색하는 방법이 있다. 견사의 경우에는 생견 상태에서 염색하는 경우와 실을 정련한 다음에 염색하는 경우 등이 있다.

* 선염 직물(fiber or yarn dyed fabric)

섬유상태에서 염색하여 방직한 실로 제작하거나 또는 실 상태에서 염색한 다음

제작하여 가공한 직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제작공정에 들어가기 전의 단계에서 염색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린다. 또 후염직물과 비교하면, 무늬의 표현과 색조에 차이점이 나타나지만 직물의 외관으로 구별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직물로서 샘브레이, 데님, 강염, 줄무늬직물, 체크무늬직물, 무늬용 위사나 경사를 쓴 문직물 등이 있다. 선염은 실 상태에서 염색하는 경우가 많으나 섬유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단계에서 염색된다.